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2375호 2024. 11. 17.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제1독서 : 다니엘 예언서 12,1-3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0,11-14.18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13,24-32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 13,31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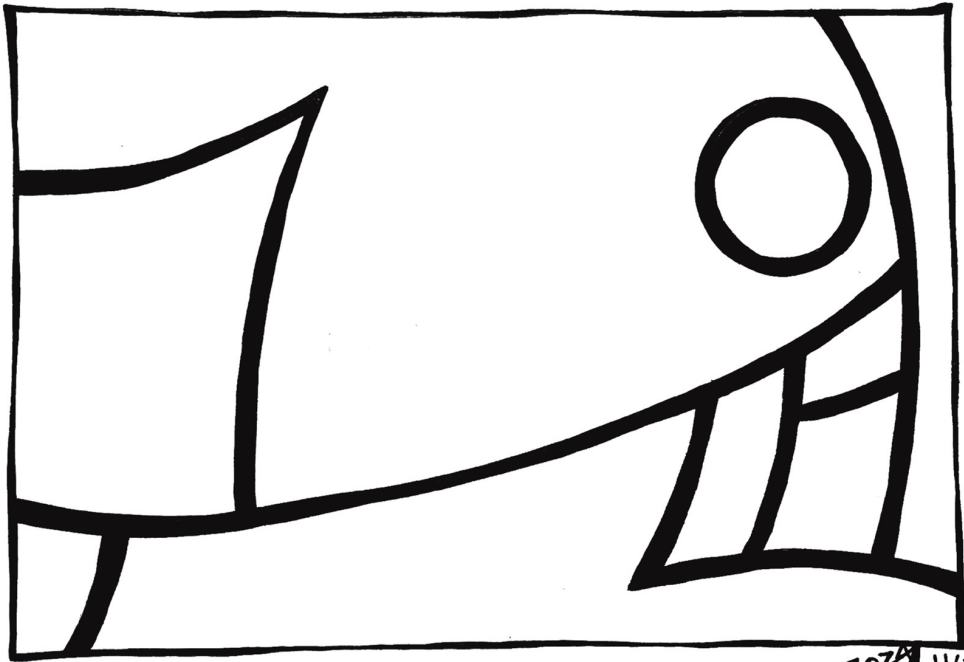


오늘의 미사

- ★ 화 답 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 ★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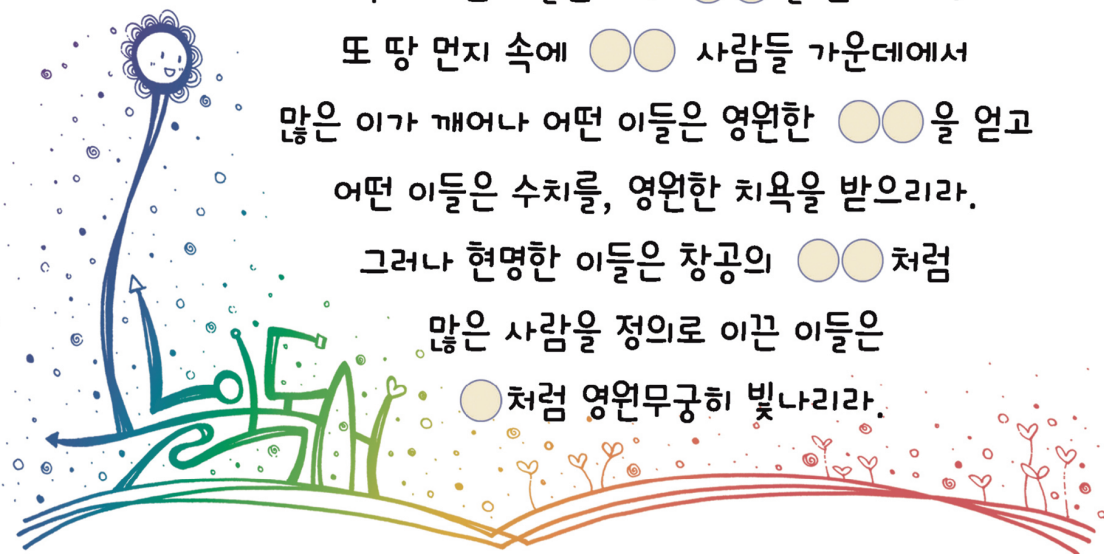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 말씀그림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2024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끄는 이들은  
 ●●●처럼 영원무궁히 빛나리라.

◇ 제1독서 <다니 12,1-3>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 신부님 말씀



13지구 난곡동 성당  
류영우 다윗 신부님

### 모두가 가난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작년에 토빗기의 말씀<“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을 빌려 가난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가난한 이를 만날 때마다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렇기에 반대로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이기주의, 경쟁과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가난은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힘겹게 만들지요.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 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이 결국 가난한 이들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과 반대로 행동하게 되죠. 무서운 점은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재산의 가난함 속에,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의 가난함 속에 빠질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혼자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봅시다.

오늘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가재울 성당 5학년 안소연 로사



이 세상에는 부유한 친구들도, 가난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로사 어린이의 작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아픈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시네요.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세상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보아요.